



폴란드

9월 총선과 10월 대선 이후의 경제정책 혼선 예상

금년 9월 하원(Sejm) 의회선거 및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우파인 '법과 정의당'(PiS당)이 제1당으로 부상하면서 폴란드의 정계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민주좌파연맹'(SLD)이 참패한 가운데, PiS당은 개혁지향주의 정당인 '시민강령당'(PO당)과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폴란드의 경제정책은 새로운 여당인 PiS당의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 하원의 제2당인 PO당의 협력 여부가 여권의 정책추진에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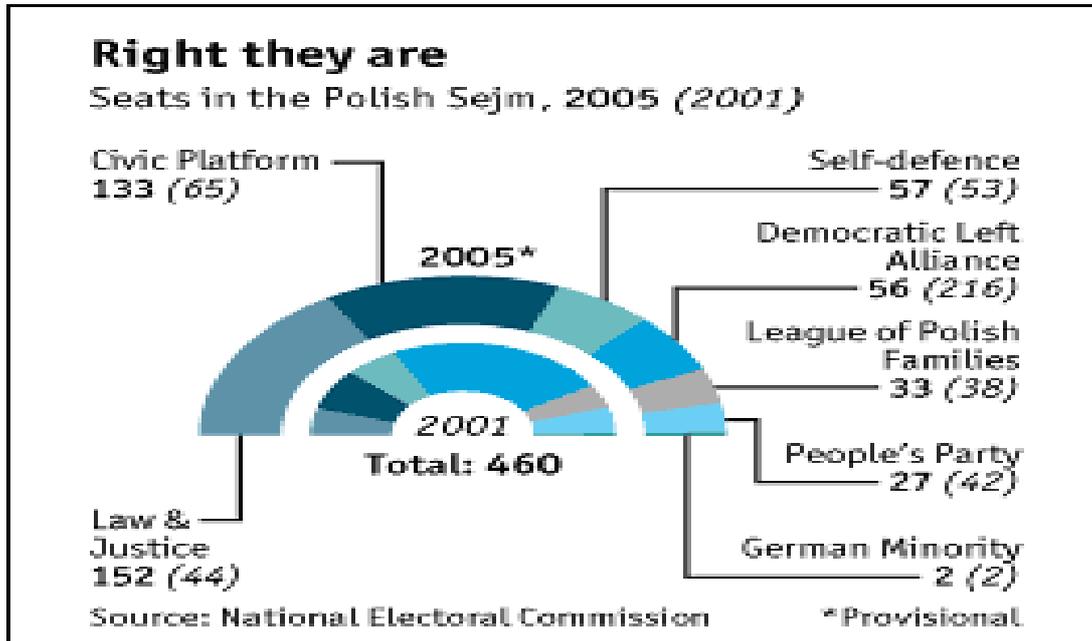
PiS당, 하원의 최대의석을 차지하면서 정권교체 실현

지난 9월 25일 하원 의회선거에서, PiS당은 투표자의 27% 득표로 총 460석 가운데 152석을 차지하였고, PO당은 24%의 득표로 133석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림> 참조). 반면, 여권의 부정부패 스캔들, 경기부진에 대한 여론 악화로 여당이었던 SLD당은 의석수가 216석에서 56석으로 줄어드는 참패를 겪으면서 민중파인 '자위당'(Samobrona)에도 뒤져 제4당으로 몰락하였다.

내각 구성에는 PO당 출신도 참여할 것이지만, 재무, 세제 등 주요 경제부처는 PiS당이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면, PiS당의 경제추진 프로그램 입안자인 Cezary Mech가 가장 유력한 재무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PiS당은 재무부를 경제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0월의 대통령 선거결과도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폴란드의 정국 향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9일 제1차 대통령 선거에서 PO당 총재인 Donald Tusk와 PiS당 출신의 Lech Kaczynski¹⁾ 바르샤바 시장이 경합하였으나, 1위를 차지

1) PiS당 총재인 Jaroslaw Kaczynski의 쌍둥이 형제임.



자료: EIU Viewswire, "Poland Politics: Can the eagle soar?", Sep. 30, 2005.

한 Donald Tusk도 과반수 득표에 실패하였다. 이후 10월 23일 재선거를 실시한²⁾ 결과, Lech Kaczynski후보가 오히려 1위를 차지하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신정권의 경제개혁 추진 의문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15%) 통합, 조세 인센티브, 세금환급·공제의 철폐를 제안한 PO당과는 달리, PiS당은 법인세율 인하(19% → 18%), 과세대상 자산의 감가상각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PiS당은 누진적인 개인소득세 제도를 유지하고, 식품·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율 특혜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폴란드 경제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신규 종업원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년간 종업원 1인당 월 300달러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당해 기업의 사회보장 기여금도 면제하는 조치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PiS당은 행정관리 개혁 및 정부부문 구조조정을 통하여 재정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스트럭처 개발, 주택 건설 및 보건비용 등에 대하여 재정지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 정부는 재정수입 및 외채상환을 위하여 20개 주요 공기업을 매각하는 민영화 추진해 왔다. 현재 민영화 대상기업으

2) 12명의 후보가 출마한 10월 9일 대선 1차 투표 득표율은 Tusk 36%, Kaczynski 33%이었으나, 10월 23일 재선거에서 Kaczynski가 55%를 득표해 45%를 얻은 Tusk를 앞선 것으로 집계됨.

〈표〉 폴란드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f
경제성장률	1.0	1.4	3.8	5.4	3.2
실업률	16.2	17.8	19.9	19.4	18.3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5.5	1.9	0.7	3.6	2.1
재정수지 ³⁾ / GDP	-3.5	-3.6	-3.9	-4.7	-3.6
경상수지 / GDP	-2.9	-2.6	-2.2	-1.5	-1.4
총외채잔액 / GDP	36.5	41.4	46.1	44.7	39.2

주: 중앙정부 기준.

자료: IMF, *IFS*, Sep. 2005 및 EIU, *Country Report*, Oct. 2005.

로는 PKO BP(최대 은행), PZU(대형 보험회사), Lotos 및 PKN Orlen(이상 정유 회사), KGHM(동광 개발업체), BOT, PSE 및 PKE(이상 전력회사), PHF(제약 회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PO당은 민영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있으나, PiS당은 국가 전략적 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기능(지분 보유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민영화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PiS당의 미온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 경제성장 부진과 재정수지 적자 지속으

로 2010년으로 예정된 유로화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등 폴란드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반영³⁾되고 있다(〈표〉 참조). 그러나 향후 PO당과의 연립내각 구성형태 및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등과 결부되어 PiS당의 보수적인 정책 성향도 변화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대통령 선거결과와 정당별 내각 구성이 폴란드 경제의 향방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조 양 현】

3) 10월 들어 Zloty화의 통화 가치가 약세를 보였고, Zloty화 표시 채권가격도 하락세를 나타냄.